남 걱정 하지 마시고 자기 앞길만 잘 보고 가세요

☞ 19면에서 계속

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봐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개인,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죽어도 살아도 더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먹을 게 없으면 죽거리라도 얻어다가 같이, 숟갈 두 개를 꽂아 놓고 같이 먹을지언정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나는. 나 그렇게 미련하고 그런 반면에 그런 게 있단 얘기예요. 난 좋은 것도 부럽지 않아요. 단지 그 인간의 참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까짓 것 뭐, 거적을 쓰고 죽으나 좋은 공단 이불을 쓰고 죽으나 그게 무슨 상관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의 과보일까요

질문 언젠가부터 몸이 계속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 보니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아 괴로운데 누가 이것도 다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과보일까요?

답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뭐, 책도 없고 적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깐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하고 내일 가면 벌써 오늘 한 거는 잊어버려서 모르시겠지만 다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즉 말하자면 숙명통에 입력이 돼 돌아가죠.

이 마음 내는 것도 작년 마음 낸 거하고 올 마음 낸 거하고 둘이 아닙니다. 짝 붙으면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습니다. 그러게 불 한번 딱 치면 반짝하는 그러한 찰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냥 앞에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 맡기고, 거기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즉 말하자면 거기 내가 있으니깐 모든 게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닥치지 내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내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가 거기서 벌어지죠, 해결이 나고.

그러니까 팔자 운명 타령은, 인제 우리가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쫓고 쫓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좀 벗어납시다, 네? 고런 관념, 고런 관습, 그 운명이다 팔자다, 무슨 업보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 줘 가지고 그게 습이 돼 가지곤, 나는 업보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런 걸 만들어 줘서 안 됩니다. 왜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왜 멀쩡한 사람에게 너는 죄가 있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의 가정을 말이에요, 남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그런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명이다 팔자다 하는 것도 없고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붙을 자리가 없다. 또는 고도 없다. 고·집·멸·도 이게 사제법이 있습니다만 '고' 하나만 없다고 생각한다면 집착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어요.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지 이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건 여러분의 그 한마음의 주인공 그 자체, 바로 법좌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 자기 법좌를 믿으라는데, 자기 본래 자성불을 믿으라는데 왜 그렇게 안 믿어요? 글쎄,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나오면서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게 있습니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 데는 같이 가 주지 않아요. 사랑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렇고 말입니다. 돈도 "너,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련?" 그러면 "네가 나를 좋아서 쫓아다녔지 내가 너를 좋아서 쫓아다녔니?" 그러고 안 가요. 모두가 그래요. 아무리 부부지간, 자식지간이라 해도 "같이 가지 않을래?" 하면 "네, 묘지까지만 같이 가서 배웅하겠습니다." 또는 "화장터밖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친구입니까, 그게? 영원한 친구는 여러분의 지금 몸을 모두 형성시켜서 가져 나온 장본인, 영원한 생명의 근본, 즉 말하자면 법좌, 그 불성 그 자체만이 자기 선장이에요. 그거를 꼭 믿으세요.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 육신을 자기가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와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스님이 고양일 딱 들고선 그냥 목을 딱 쳤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말을 안 하면 치고 말을, 대답을 하면 안 친다." 했는데 영 대답을 못 하니까 고양이 목을 쳤거든요. 예전에 동당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스님네들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간단히 얘기하죠. 아이, 어느 스님이 들어오니까 그 스님에게 아까 있었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짚세기 신었던 거를 머리 위에 이곤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때요? 멋지죠?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삿갓 쓰고 법좌 들고 바리때 하나 들면, 그저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네? 대장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 턱 믿고 아무 소리 없이 나가거든. 그 뜻을 모르시겠죠? 말로 해 줘서는 아니 되니 여러분의 법좌를 진짜로 믿으시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몸뚱이 속의 그 생명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 가지고 천백억화신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그저 털구멍을 통해서 들이고 내고 하면서 그 만 가지 법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의 말에 끄달리지 마시고 모든 병고와 가난과 우환, 또 성공과 그런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니깐 거기서 해결해.'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나와 남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 보십시오.

>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 삿갓 쓰고 법좌 들고 바리때 하나 들면
> 그저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관하는데 탁 놔지지 않아요

질문 열심히 관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하던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인공만을 붙잡고 매달려 보지만 상대에 대한 원망과 걱정이 계속 올라와 탁 놔지지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댁에도 마음이 약해서 남의 말만 안 들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 사람의 말을 아주 100% 믿었다기보다도 믿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깐 남한테 당하지 않는 것도 그 부처님 법입니다. 당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고 안 당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지마는 자기가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벌써 그렇게 넣어야죠. '이게 당하지 않게 너만은 할 수 있잖아.' 하고.

물어보더라도 자기한테, 내면의 자기한테 물어보지 딴 사람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럼 벌써 그 사람하고 하기 싫게 돼요. 그래서 이 길로 가려고 가는데 이 길이 가기 싫어서 저 길로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깐 사기도 안 당하고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깐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담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삼자를 지금 아주 떡 먹듯이 믿으면 안 되죠. 믿기는 하되, 사랑을 하되 속으로 사랑하고 그저 겉으로는 그 사람도 나쁘게 만들지 말고요.

그 사람네들 때문에 그 여러 사람이 돼 가지고 소근소근하는 까닭에 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깐 요담에 그럭하지 마시고 항상 그것도 아귀를 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해 놓고, 뒤에도 회향이 제일 어렵죠. 이게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 가서 회향할 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 회향 끄트머리에 할 것까지 결정을 이렇게 짓고 하세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말입니다.

기복 신앙이 아닌지요

질문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근본 자리를 찾기보다 주로 자기 남편,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관하는 걸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복 신앙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생각인지요.

답변 기복이라기보다는요, 댁이 만약에 늙어서 죽을 때에 남의 걱정 하게 되겠어요? 내가 부지런히, 지금 급해서 길을 가는데 옆에서 누가 싸운다,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 거기 참섭하느라고 가던 길을 멈추겠어요?

또 한 번 극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할 때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그거 참견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자기가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구멍에다가 자꾸 관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했다가 안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게 하는 거를 그대로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가 놔야 되는 거죠. 그게 굴려놓는 거거든요.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깐 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놔야 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된다를 다 놓고 자기가 그냥 지금 현재의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서 거기다 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그런 건데 댁은 남이 그런다고 하는데 남이 그러기 이전에 당신이 남의 걱정 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 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참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지금 죽은 저승엘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모든 거를, 보기에 안되는 거 같고 보기에 좀 트릿한 거 같고 못나게 보이고 그러더라도 '어, 내가 전자에 그렇게 못났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모든 걸.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 걱정 하지 마시고 자기 앞길만 잘 보고 가세요.

